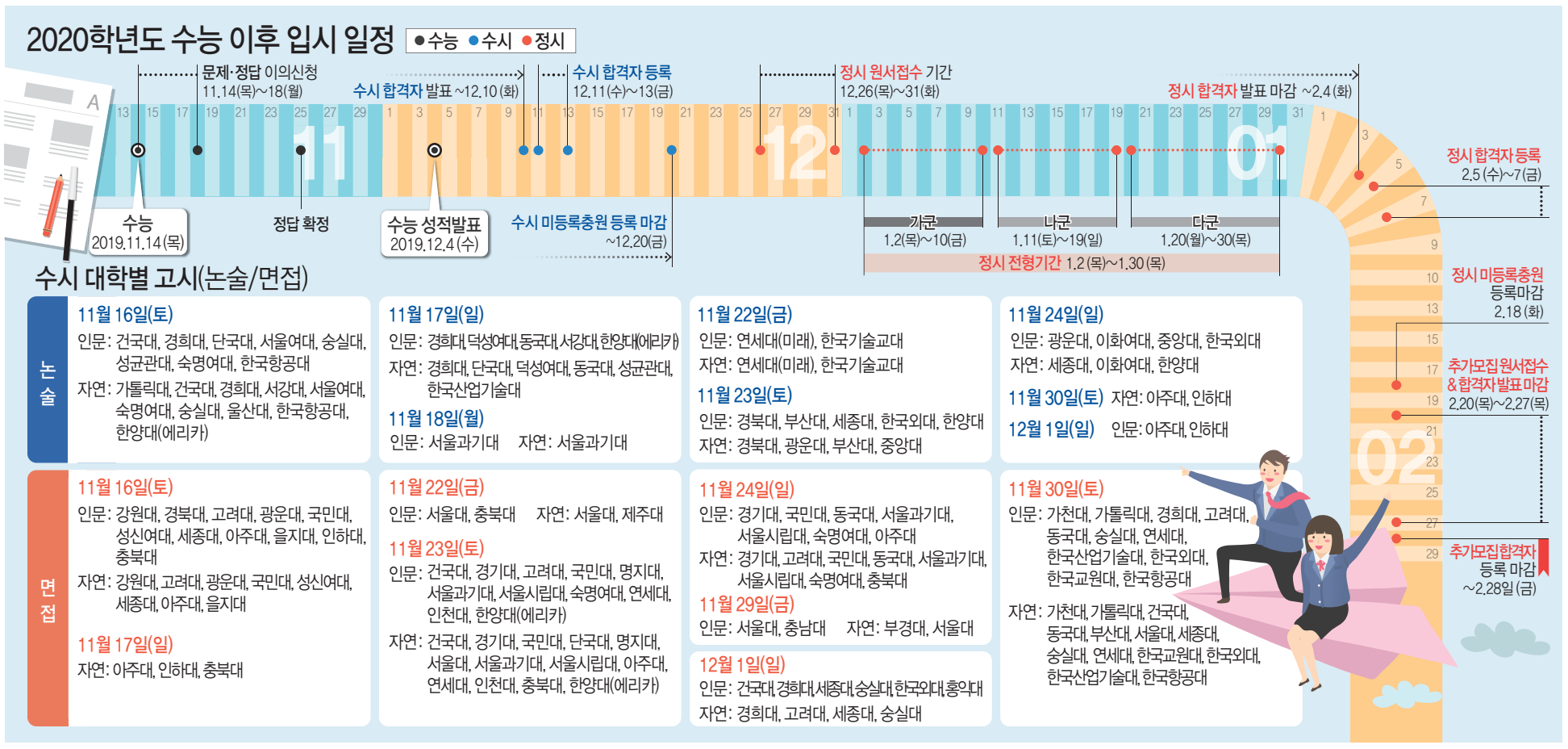

주말부터 대학별 수시모집 논술고사 진행

가채점 통해 수시·정시 선택… 추가합격자 비율도 체크

수시 수능 최저학력기준 통과 확인
정시 각 대학별 유리한 전형 선택
논술 기출문제·출제배경 등 참고
면접 일정·방식 꼼꼼하게 체크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끝났지만 이제 다시 시작이다. 신입생 선발을 위한 학생부와 수능 성적이 정해짐에 따라 앞서 지원한 수시모집의 수능 최저학력기준 충족 여부와 논술 등 대학별고사 지원 여부, 수능 성적 위주 정시 모집 전략을 짜야 한다.

우선 수능 가채점을 통해 자신의 수능 성적을 최대한 정확히 분석해야 한다. 다만 가채점을 기준으로 지원 전략을 짤 때는 원점수가 아닌 표준점수와 백분위 성적을 기준으로 분석해야 한다. 그래야 수능 성적 발표일(12월4일) 직후 최선의 지원전략을 신속하게 짤 수 있다.

가채점 결과 평소보다 점수가 낮게 나왔다면 이미 지원한 수시모집 대학의 대학별고사 준비에 집중하는 것이 좋다. 수시지원 대학 중 합격 가능성이 높은 대학을 선택해 집중 대비하자. 이 때 주의할 점은 수능 최저학력기준 통과 여부를 최대한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반대로 수능 성적이 평소보다 잘 나왔다면 정시모집에 적극 공략하는 것이 좋다. 대다수 대학이 정시모집에서 수능 성적 100%로 신입생을 선발하므로 수시모집에 지원한 대학이 정시 수능 전형으로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수시모집 대학별고사 응시를 과감하게 포기하는 것도 신중히 고려해야한다. 수시모집에서 한 곳이라도 합격하면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정시모집에 응시할 수 없어서다.

내달 4일 수능 실제 성적이 발표되면 가나다군별 각 1곳씩 총 3번의 지원 기회를 활용하자. 정시모집 원서접수는 12월26일~31일까지 대학별 3일 이상으로 원서접수 일정도 확인해야 한다.

정시 지원시에는 수능 반영 영역 수, 탐구영역 반영 과목 수, 영어 반영 방법, 전형 요소와 영역별 반영 비율, 가산점 부여 여부, 지정 과목 유무, 수능 점수 활용 방식, 내신 반영 방식, 대학별고사 실시 여부 등을 고려해 자신에게 유리한 전형을 선택해야 한다.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4일 오전 서울 이화여자외국어고등학교 수험장에서 수험생들이 시험 시작 전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날인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조계사를 찾은 시민이 수험생을 응원하는 문구가 적힌 종이를 줄에 걸고 있다. /연합뉴스

메가스터디교육 남윤곤 입시전략연구소장은 "각 대학별 전형 요강과 모집 군별 특징을 고려해 올해 지원자들의 동향도 예측해보고, 대학별 추가합격자 비율도 체크해 지원하는게 좋다"고 조언했다.

◆ '선행학습영향 평가결과보고서' 필독

수능 직후 주말부터 대학별 수시모집 논술고사가 진행된다. 16일에는 건국대, 경희대, 단국대 인문, 서강대 자연, 서울여대, 성균관대 인문, 숙명여대, 숭실대, 한국항공대, 한양대 에리카 자연, 가톨릭대 의예과, 울산대 의예과 등 12개교로 가장 많이 몰려 있다.

이어 17일에는 경희대, 단국대 자연, 덕성여대, 동국대, 서강대 인문, 성균관대 자연, 숙명여대 인문, 한양대 에리카 인문 등 8개교가 논술을 치른다.

수시 논술전형은 학생부 반영 비율이 낮고 논술 영향력이 커 이번 수능 성적이 기대보다 낮게 나온 수험생들에게 마지막 희망의 끈을 갖고 도전해 볼 수 있는 전형이다.

대학 홈페이지에 '선행학습영향 평가결과보고서' 등에서 논술 기출 문제, 출제 배경, 채점 근거, 논제 해석에 대한 방향 등을 찾아 참고하는 게 좋다. 대학에 따라 논술 특강, 논술백서, 입시 결과 등에 학교별 출제 경향을 포함해 논술 대책도 안내한다.

◆ 면접 전형 22일부터… 서류·제시문 기반

대학별 수능 이후 면접전형 역시 대학별 일정과 방식, 최저학력기준 등이 다르므로 지원하는 대학의 모집요강을 꼼꼼히 파악해야 한다.

대학별로 서울대 면접은 11월22일(일반전형 전체 모집단위, 의·치·수의대 제외), 11월29일, 30일 이어지고, 고려대(11월23일~24일), 연세대(자연계열, 국제계열 11월23일, 인문계열 11월30일), 경희대(11월30일~12월1일) 등 대학·계열·전형별 일정이 상이하다.

예컨대 서울대의 경우, 일반전형 면접은 공동 출제문항을 활용해 심층면접을 하지만, 지역균형선발전형 면접(사범대 경우 교직적성·인성면접 포함)은 제출서류를 토대로 서류내용과 기본적인 학업소양을 확인하는 면접이다. 고려대와 연세대 면접은 제시문 활용 면접이고, 경희대는 인성면접으로 치러진다.

제출서류 기반 면접은 학생부와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하므로 서류에 담긴 본인의 경험을 되돌아보고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미리 생각해두는 게 좋다. 제시문을 활용한 면접은 인문·사회계열의 경우 평소 독서활동이 바탕이 된 제시문 이해와 논제에 대한 비판적 사고가 중요하고, 자연계열은 수학과 과학 등 각 과목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주요 평가요소다.

◆ 적성고사로 학생부 성적 역전 가능

수능 이후 수시모집 적성고사는 17일 홍익대세종과 한국산업기술대를 시작으로, 23일 고려대세종, 24일 가천대, 30일 평택대, 12월1일 한신대 등 6개교에서 치러진다. 학생부 성적 60%에 적성고사 성적 40%로 선발한다.

적성고사는 객관식 시험으로 출제되고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문항을 풀어야 하므로 응시생 간 점수차가 크다. 따라서 학생부 성적이 부족해도 적성고사를 잘 보면 2~3등급 정도를 충분히 역전할 수 있다.

실제로 가천대 전년도 수시 결과를 보면, 학생부 등급간 점수차가 3점인 것과 비교해 적성고사 1문항당 점수는 3점 또는 4점으로 2~3문항의 차이로 교과성적 2개 등급 이상을 역전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적성고사를 잘 보기 위해서는 대학 기출문제와 모의고사 문제에서 발표된 예시문항 등을 참고해 시험의 출제 유형을 잘 익히는게 좋다. 난이도는 수능의 70~80% 수준으로 출제되고 출제 범위는 국어, 수학(문과 기준), 영어와 유사하며 부분적으로 순수 적성 문제가 포함된다고 보면 된다.

종로학원하늘교육 오종운 평가이사는 "적성고사는 속도검사라고 할 수 있으므로 문제를 빠르고 정확하게 풀어내는 연습을 꾸준하게 하는게 좋다"고 조언했다.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